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 1989학년도 하계대학발전세미나

## “현시대에 부합되는 교육과정개발”



과거 1976년, 1981년, 1985년도에 각각 교과과정을 개편한 바 있는 서울치대에서는 올해도 충남 유성의 리베라호텔에서 “현시대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학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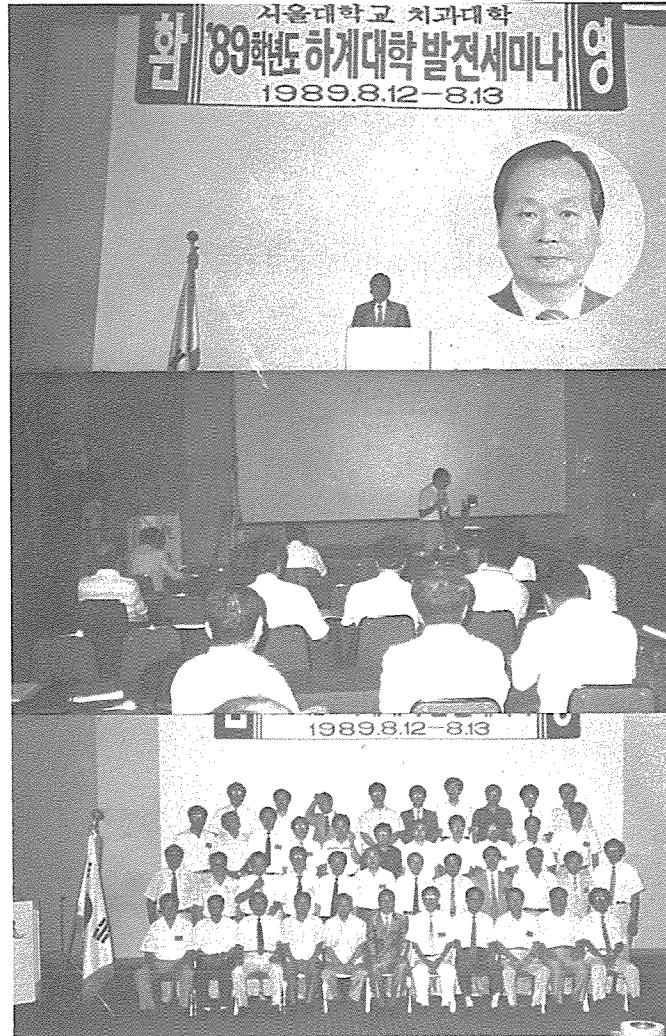
이번 대학발전세미나에서는 상기 주제하에

1. 교과목의 신설방안
2. 학사과정 통합강의 개설문제
3. 기초·임상 교과목의 연계성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961년부터 1985년까지의 개편내용은 개편보다는 소폭의 개선으로, 기본형태를 유지하며 변화를 모색하였던 것으로 자평하고 최근 2년간의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도 개편보다는 개선쪽으로 비중을 두어온게 사실이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91년으로 예상되는 치과진료부의 창경 국민학교 부지의 이전계획에 따른 기초·임상연계, 선택과목개설, 저학년에 Clinical Orientation 신설, 임상실습교육의 조기노출, Student Clinic 운영등의 대폭적인 교과과정의 개편이 불가피해짐에따라 대학발전 세미나, 교과과정위원회 워크샵, 교과과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연구활동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1990년도 학기부터 시행키로 예정했다.

1. 현 150학점을 160학점으로 조정
  2. 강의 및 실습시간을 줄임
  3. 교과목 신설(예 : 치과병원관리학, 의학 윤리 등)
  4. 교과목 내용의 일부 통합강의(예 : 악안면신경과학, 교합학등)
  5. 교과목 명칭변경(예 : 3학년 기초과목 및 4학년 임상과목)
  6. 실습 1학점 2시간을 4시간으로 현실화
  7. 졸업종합시험 학점화
- 등을 우선개선하며 그 다음에



1. 학점, 시간의 비합리적 배정의 조정
2. 교과목 선·후수 재조정
3. 유사교과목 통·폐합 및 축소
4. 저학년에 Clinical Orientation 신설
5. 선택과목 개설
6. 임상조기노출(Early Clinical Experience)
7. 임상조기노출시 1학년이나 기초과목부터 4학기제(quarter제) 운영